

실질성장률 -6.0% ↓ 2년 연속성장 후 급 반전

총 40,162백만\$, 명목 -8.7% 실질 -6.0%로 2년 연속 성장세 돌아서
바스프·다우 1단계씩 상승, 몬산토 2단계 하락, 다른 회사들 동순위

- 기술개발부 -

2009 년 세계 농약시장은 전년보다 8.7% 줄어든 40,162백만 달러로 나타나 2007년부터 이어오던 2년 연속 성장세가 급반전 됐고 실질 성장률 또한 -6.0%로 나타났다. 2009년 매출액 감소는 2년 연속 성장이 역전된 것이고 1990년대 중반 장기적인 하향 추세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세계농약 산업은 2004년과 2007년, 2008년 등 오직 3번의 실질 성장이 있었다. 실질성장으로 2009년 시장은 2004년에 비해 3.1% 작아졌고 1999년에 비해 10.5% 작아졌다.

세계 농약시장은 197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 최고에 도달하였다. 1996년 전 세계 매출액은 32,350백만 달러(2009달러가치로 46,162백만 달러)였다. 그 후에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장기

간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물가는 과잉 생산으로 재고량이 늘어갈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GM작물의 등장으로 제초제와 살충제의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외 다른 요소로서는 농경제의 약세와 경제위기, 이상기후 그리고 치열해진 경쟁 등이 있다.

다시 매출성장을 달성한 해는 브라질 콩 녹병 방제용 살균제 시장의 빠른 확대로 2004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출액 감소는 2년 연속 이어지다가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의 경기회황과 바이오연료의 수요증가, 소프트 제품(설탕, 곡류 등) 물가의 상승, 농약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다시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는 남미와 동유럽

2004년이후 세계 농약시장 변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명목 시장매출액(백만\$)	32,349	32,867	32,162	36,183	43,989	40,162
전년도 시장매출액(백만\$)	28,515	32,349	32,867	32,162	36,183	43,989
명목성장률	+13.4	+1.6	-2.1	+12.5%	+21.6%	-8.7
무역 가중 인플레이션	+3.6	+3.3	+2.9	+3.2%	+5.4%	+2.0
무역 가중 환율영향 ¹	+4.5	+3.5	+1.6	+5.0%	+3.3%	-4.7
실질성장률 ²	+4.9	-5.0	-6.4	+3.8%	+11.7%	-6.0
실질시장가치(백만\$) ³	42,652	40,532	37,938	39,388	43,989	40,162

1 : 달러 강세 시 negative 2 : 명목성장/(인플레이션× 환율) 3 : 2009 달러 기준

1999-2009 농약시장 변화

	1999-2009	2004-2009	2008-2009
	(10년)	(5년)	(1년)
명목성장률	+2.9	+4.4	-8.7
실질성장률	-1.1	-0.6	-6.0

지역 신흥시장에서 심각한 신용 문제를 초래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주요 지역의 해충 및 병의 발생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억제되었다. 다른 부정적 요인으로는 곡물가 하락이다. 2008년 수요증가는 2009년 유통업자에게 취급품목을 증가시키게 하였지만 상당 부분 상반기에 팔리지 않아 가격하락을 가져왔다(특히 글라이포세이트).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는 새 제품을 높은 가격에 내놓으며 제품의 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요인의 결과로 실질 성장은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1%였고, 지난 5년간 평균 -0.6%를 기록했다.

2009회사별 현황

수요가 활발했던 2007년, 2008년과 달리 2009년도의 전 세계 농약 산업은 급격한 침체로 돌아섰다.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이 시기,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 하락으로 11개 주요 농약 회사 중 스미토모와 바스프 등 2개사만 매출액이 성장 하였다. 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은 최고 +1.7%(스미토모)에서 최저 -34.9%(몬산토)의 범위를 보였다.

2009년 농약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인수나 주식거래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인수는 주요 큰 기업들이 작은 농약생산시설이나 생명공학 종자를 인수 한 것이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중국의 Sinochem이 Nufarm을 인수하기 위해 입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매출액 순위에 관해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회사는 몬산토이다. 글라이포

2009 회사별 농약매출

회 사	2008		증 감		2009	
	현지화 (백만)	달러화 (백만)	현지화	달러화	현지화 (백만)	달러화 (백만)
신젠타	\$9,231	\$9,231	-8.0%	-8.0%	\$8,491	\$8,491
바이엘크롭사이언스	*5,930	\$8,675	1.3%	-3.8%	*6,007	\$8,349
바스프	*3,409	\$4,987	7.0%	1.6%	*3,646	\$5,067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4,067	\$4,067	-3.6%	-3.6%	\$3,920	\$3,920
몬산토	\$4,998	\$4,998	-34.9%	-34.9%	\$3,425	\$3,425
듀폰	\$2,617	\$2,617	-7.2%	-7.2%	\$2,429	\$2,429
막테심-아간	\$2,335	\$2,335	-12.5%	-12.5%	\$2,042	\$2,042
뉴팜	A\$2,737	\$2,288	-14.8%	-20.4%	A\$2,332	\$1,821
스미토모 화학	¥142,449	\$1,378	-7.9%	1.7%	¥131,151	\$1,402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	¥120,892	\$1,169	-15.9%	-7.0%	¥101,719	\$1,087
에프엠씨	\$1,059	\$1,059	-0.7%	-0.7%	\$1,052	\$1,052

(*단위: 유로)

사이트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으며 2단계 떨어진 5위에 랭크됐다. 바스프와 다우 아그로사이언시스가 1단계씩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보였다.

신젠타가 농약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였지만, 유럽 시장 매출 약세와 신흥시장 위기관리 등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는 다른 제초제 (특히 글루포시네이트)의 판매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좋았다. 신젠타와 매출액 차이를 줄이며 1억42백만 달러차이를 보였지만 업계 2위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매출 성장을 나타낸 두 기업 중 하나인 바스프는 작년 Sorex의 기여와 4/4분기 남미의 활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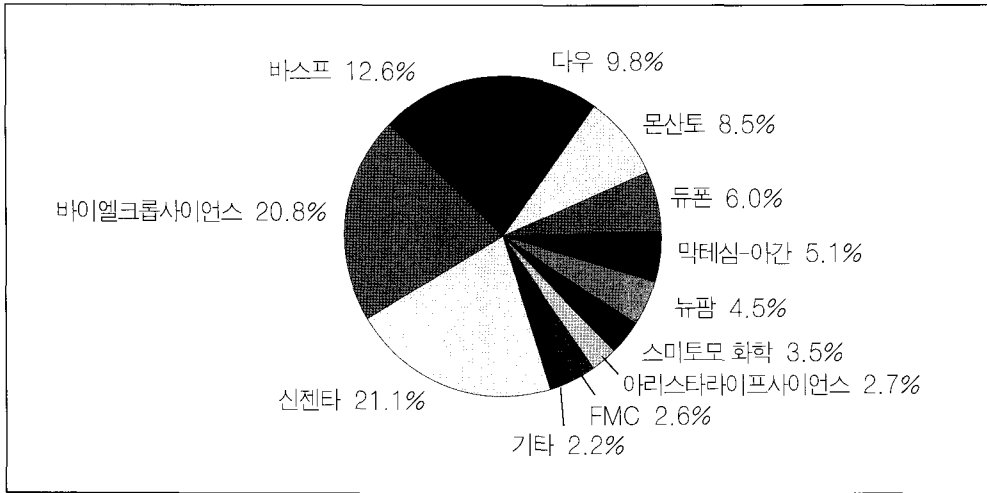
매출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다우 아그로사이언시스 사는 pyroxsulam, penoxsulam과 Invinsa 등 새 제품의 성장덕분에 매출기준으로 2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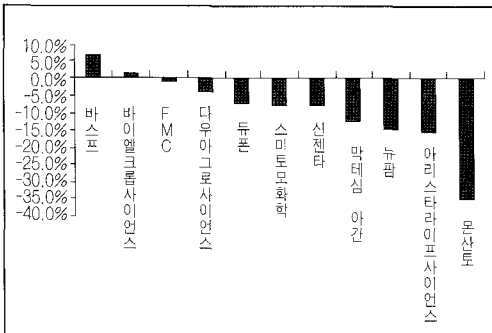
반면 몬산토사는 2008년에 약 50억불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매출액이 34억불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요 농약 기업 중 가장 매출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순위에서도 2단계 떨어진 5위에 자리했다.

듀폰은 새로운 살충제인 Rynaxypyr가 빠른 성장을 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다른 제품의 판매 약세로 실적은 평이하였다. 막테심 아간의 매출 상황은 이상기후, 유통사의 높은 재고량, 불안정한 통화, 글라이포세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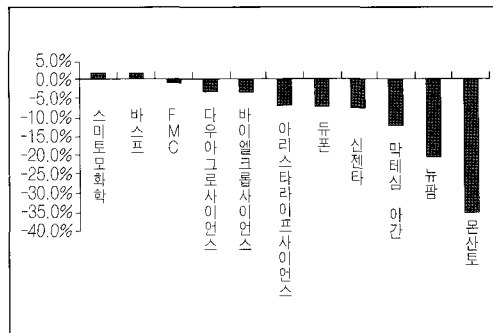
2009 선도 회사별 시장점유율



2009 회사별 판매변화(지역통화 기준)



2009 회사별 판매변화(미국달러 기준)



가격 경쟁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평균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뉴팜은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인 회사였다. 몬산토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글라이포세이트의 실적이 좋았지만, 2009년에는 경쟁이 심화되었다.

스미토모화학은 북미의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잡초에 사용된 선택성 제초제 매출의

영향으로 달러가치로 매출 성장을 보였다.

아리스타는 2001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달러기준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팬찮은 모습을 보였다. 에프엠씨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 CB Professional과 benalaxy의 기여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생산 규제로 받은 불이익을 상쇄시켰다. Y